

지역 소식통

고창군, 유시민 작가 초청 특별강연회 개최

고창군이 오는 21일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방문의 해'를 맞아 유시민 작가를 초청해 특별 강연회를 연다.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강연회는 먼저, 오전 10시 고창군민을 대상으로 '우리의 민주주의,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고창문화의전당에서 진행된다.

오후 3시에는 선운산유스호스텔에서 열리는 전라북도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행사에서 초청강연을 펼친다.

유시민 작가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마인츠요하네스 구텐베르크 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과정을 거쳐 제16·17대 국회의원, 제44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했다.

주요저서로는 거꾸로 읽는 세계사(2021개정판), 유럽 도시기행(2019), 청춘의 독서(2017), 표현의 기술(2016), 유시민의 글쓰기(2015),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2014), 어떻게 살 것인가(2013) 등이 있다.

최근에는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라는 책으로 작가로서의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추석맞이 장애인 생산품 판매행사 가져

정읍시는 18일, 시청 앞 광장에서 추석맞이 장애인 생산품 판매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자에지립장과 만복보호작업장, 전라북도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이 참여해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성된 45종의 선물세트를 전시, 판매했다.

이를 통해 도내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생산품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알리고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강한석 노인장애인과장은 "이번 행사가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인식개선과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 확보를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장애인들과 함께 행복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생물농업으로 저탄소농업 실천

고창군, 국내외 각계 전문가 참여 심포지엄 개최

고창군에서는 생물농업을 통한 저탄소농업을 실현하고자 국내외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심포지엄을 추진했다.

심포지엄에는 고창의 특산물인 북분자와 수박, 멜론, 인삼, 팥콩을 재배하는 20여 농가가 참여해 이상기후에 따른 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하고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특히, 심덕섭 고창군수는 개회식 인사말을 통해 탄소중립도시 '넷제로(NET ZERO) 시티'를 구현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농업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고창군에서 세계유산을 보존하고 기후위기로 부터 생존하기 위한 전략으로 미생물, 천적, 돌봄 등 각종 생물

자원을 활용한 저탄소농업을 육성하는 데 앞장서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진행된 심포지엄은 '고온성 미생물(CGM)을 활용한 농작물 면역력 강화기술 및 브랜딩 전략'이라는 주제로 △CGM(고온성미생물)에 의한 뿌리털 증가가 농작물 생산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전남대학교 김길용 교수) △CGM이 태국 팻차부리 파인애플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태국 실바온 대학교 사리랏 명경 교수) △고창농산물 프리미엄 브랜딩 전략(메타브랜딩 박항기 사장)으로 1부 행사가 진행되었다.

2부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기후 스마트농업'이라는 주제로 △기후스마트 농업이란?(APEC기후센터 전종안

박사) △무로양 재배기술 기반 지하수 오염 저감 연구(미국 UC Davis 대학교 헤이더 리스 교수)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도(한국농업기술진흥원 최민혁 연구원) 순으로 이어졌다.

3부 종합토론회는 기후변화매개체 감시거점센터장이며, 고창북분자 안정 생산 연구에 참여한 바 있는 전남대학교 응용생물학과 한연수 교수가 넷제로 고창 실현을 위한 발전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토론회로 초청된 국립농업과학원 김미희 연구관, 태국 차양마이대학교 라차다완 차왕쿤 교수, MO이오텍 전현덕 대표, 관중산업연구소 이형근 대표, 포이시는 각각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생물자원의 중요성과 적용방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고창=김영식 기자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에 힘쓸 것”

정읍시, '2024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 선정

정읍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2024년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공모사업에 2곳이 선정돼 국비 4억 2000만원을 확보했다.

선정된 사업은 신태인체육관(안전취약시설) 시설물 개보수와 장애인 테니스장 시설개선공사 등 2개 사업이다.

시설노후로 올해 1월 안전취약시설로 고시된 신태인체육관은 음향설비·슬라브·벽체 등 개보수를 통해 안전한 체육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읍체육공원 내 위치한 장애인 테니스장은 노후된 하드코트 1면 교체와 비가림시설 기능보강을 실시해 생활체육과 장애인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지속적인 생활체육 시설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다양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겠다"며 "노후된 체육 시설은 안전하게 개선해 시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힘쓸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풍수해생활권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최종 선정

부안군, 향후 5년간 국비 427억원 · 도비 171억원 등 총 855억 투입

부안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서 백산면 용계리 일원의 중복지구와 변산면 격포리 일원의 격포지구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국비 427억원, 도비 171억원 등 총사업비 855억원(중복지구 455억원, 격포지구 400억원)을 중복지구 격포지구 정비사업에 투입하게 된다.

사업대상지인 중복지구와 격포지구는 지난 2011년, 2012년, 2019년, 2020년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해 약 16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다.

군은 지난 1월부터 중복지구 정비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하는 등 재해 예방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번 사업으로 중복지구에는 펌프장 신설 1,500㎡/분, 배수로 정비 L=1.3km, 축제 L=1.0km 교량 재가설 4개소,

사면보강 L=300m 등이 포함되며, 격포지구에는 펌프장 증설 900㎡/분, 우수관로 개량 L=0.825km, 축제 2.59km, 교량 재가설 5개소 등이 포함되며, 자연재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관악원 부안군수는 "앞으로도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2023년 신규공무원 임용식 개최

고창군이 18일 고창군청 5층 회의실에서 신규공무원 30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번 임용식은 2023년도 제1회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최종합격해 지난 11~13일까지 신규공무원 기초 역량 교육을 마친 새내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임용된 신규공무원들은 9급 총 11개 직렬 30명으로 직렬별 인원은 행정 9, 세무 2, 전산 1, 사회복지 2, 사서 1, 공업 1, 농업 3, 해양수산 1, 보건 2, 환경 1, 시설 7명이다.

고창군은 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업무가 과중되는 상황에서 신규공무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인력부족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군 공무원



고창군이 18일 고창군청 5층 회의실에서 신규공무원 30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으로 임용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제17회 전라북도장애인체육대회 참가해 종합 3위의 성적을 거뒀다.

정읍시, 제17회 전라북도장애인체육대회 '종합 3위' 달성

정읍시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김제시 일원에서 열린 '제17회 전라북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해 종합 3위의 성적을 거뒀다.

이번 대회에 시는 12개 종목에 83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다.

선수단은 최상배, 보치아 육상 종목에서 1위를 달성하고 론볼, 파크골프 종목에서는 2위를 기록해 종합 3위

를 거뒀다.

이학수 시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밤늦게까지 훈련에 매진하며 흘린 선수단 여러분의 값진 땀방울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며 "장애인체육인의 결집된 힘을 동력으로 '시민중심 으뜸정읍'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추석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실시

정읍시가 추석을 맞아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특별점검에 나선다.

시는 9월 21일부터 10월 6일까지 폐수 무단방류, 악취 등 환경오염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중점감시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도축·육류가공, 식품가공 등 폐수 다량 배출업체, 폐수 위탁업체 등 오염우심지역 폐수배출업체와 아스콘 제조업체 등의 미세먼지 다량배출업체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 전에는 환경오염물질 배

출사업장 자체점검 협조 안내를 시작으로 취약업체·지역 중심 감시·순찰을 강화하고 오염우심지역 배출업체를 특별점검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 중에는 산업단지과 주변 하천 등 오염우려 지역에 대한 수시순찰,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 설치·운영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백근대 환경정책과장은 "환경오염 시설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추석 연휴 취약시기 불법 환경오염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